



자연과 상생하는 벤처정신

엔존 대표 김영진

바다는 신비하다. 어릴 적 손가리개를 하고 하염없이 바라다보던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물빛. 그 속을 알 수 없어 더욱 경이롭기만 한 바다가 이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주도하게 되었다. 암이나 노화억제제 등의 신물질, 신약소재개발을 위해 초점을 곤두세우던 육상생물이 점점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해양으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이용 해양 수산자원이 나노 바이오 기술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식의약품, 화장품, 식품보조소재 등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그러하며, 실제 산호에서 추출한 소염진통제 수도 테로신(pseudote rosins), 갑각류의 외피에서 추출되는 키토산(chitosan), 명계의 면역억제제 디템닌 B (didemnin B), 이끼벌레의 항암제 브리오스타틴(bryostatins) 등이 그러하다.

엔존은 2004년부터 기존 천연물사업에서 과감히 해양바이오산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국내의 해양 생물과 해조류시장을 검토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 좋은 우리 바다의 해양자원들 중 고영양을 가진 해조류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우리의 식탁에는 제대로 된 해조류 한 오라기 올리지 못하는 어이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첫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청정해역에서만 자란다는 매생이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 매생이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한다면 바늘 그림자 하나 없는 사막을 혼자 건너가는 기분이었다. 정말이지 외롭고 막막했다. 그러나 이제 매생이는 엔존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그 기능성과 효능, 효과가 입증하게 되었으며, 최고의 건강식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까지 수출하게 되었다. 또한 매생이에서 추출한 고품질의 엽록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소재에서부터 주류 및 음료, 매생이냉면, 매생이칼국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하나의 숙제를 갖게 되었다. 뿔이 살아있는 청정해역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녹아버리는, 그야말로 깨끗한 곳에서만 자라는 매생이가 환경 오염에 의해 자라지 못하고 그 수확량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소중한 해양자원을 보호해야겠다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숙제.

선진국들은 해양생물을 단순히 식량자원으로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유용 물질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하에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많은 해양생물공학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바다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생활하기에 알맞도록 창조된 자연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우리 기업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환경을 가꿔야 하며 이윤과 무관하게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본다.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최첨단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벤처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